

# 코엘료는 알고 있다. 소설과 실용서의 동상이몽을!

글 | 임지호

“전에 자네가 주고 간 책을 읽었다네.”

장사도 되지 않는 고서점 주인 리이드는 오랜만에 놀러간 벗에게 뜬금없이 코엘료의 《연금술사》와 《오 자히르》를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건넸다.

“재미없더구먼.”

“재미가 없다구? 이 책은 최고의 베스트셀러 아닌가. 더군다나 코엘료의 책들은 작가의 이름만으로도 신뢰감을 주고 있는데.”

“베스트셀러라면 누구에게나 재밌어야 한다는, 아니 재밌다는 말인가?”

“아니, 그런 건 아니네만 많은 대중에게서 사랑받았다는 말은 그만큼 보편적인 재미와 감동을 주고 있다는 말이네. 단순히 자네의 베스트셀러 기피증이 재발한 게 아닌가 싶네만.”

“쫓쫓, 그러니까 자네는 언제나 삼류 편집자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언제나처럼 리이드는 독설을 내뱉었다. 이젠 습관이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나는 비꼬아 물었다.

“일류 편집자가 되려면 어찌 생각해야 합니까, 선생님? 코엘료의

책들은 나비효과에 의해서 우연히 베스트셀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출판사의 음모라도?”

리이드는 모르는 척 대꾸했다.

“다른 책은 모르겠네만, 《연금술사》나 《오 자히르》나 본디의 의미를 지닌 소설과는 많이 다르더군. 말 막지 마시게, 지금 설명할 테니까. 《연금술사》를 읽으면서는 성장 소설인가 싶었는데, 《오 자히르》를 읽으면서 깨달았다네. 이 책들은 소설이 아니라 소설의 형태를 띤 자기계발서네.”

“자기계발서라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같은 책과 같다는 말인가?”

“그렇네. 좋은 예를 들었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우화를 빗대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실용적인 목적을 둔 책이네. 어떻게 코엘료의 책들과 같다는 말인가?”

“자네도 책을 읽었으니 알겠지만 《연금술사》도 그렇고 《오 자히르》도 그렇고 결국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자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알겠고, 여기서 문학의 정의에 대한 토론도 하기 싫지만 근본적으로 두 책은 같다네. 《연금술사》를 보게나. 줄거리는 양치기 청년 산티아고의 자아를 찾는 여행기이지만 그 내용은 산티아고의 행적보다는 교훈적 잠언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가르침을 설파하는 데 애를 쓰고 있다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그런 잠언을 전달할 매개체일 따름이네. 책을 보아하니 자네도 한 페이지 걸러 하나씩 줄을 그었더구먼. 자네가 《누가 내 치즈를...》을 예를 들었네만, 그 책은 결국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지? 《연금술사》도 딱 그렇다네. 형태가 조금 더 문학적이고 작가의 문장력이 더 훌륭할 뿐, 자아의 연금술적인 변성<sup>變性</sup>, 즉 깨달음을 통한 자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네.”

“그러면 《연금술사》가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인가?”

●이 글을 쓴 임지호는 가끔씩 출판평론가로 '오해' 받는 독자. 서점에서 책을 읽다가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창립멤버로 끌려 들어가 편집장, 웹마스터라는 명함을 달고 책을 읽었다. 프롬테우스 편집장, 아웃사이더 편집장을 거쳐 현재 북스피어라는 출판사에서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 읽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만큼 후회할) 것인가 [www.Readordie.net](http://www.Readordie.net) 를 운영하고 있다.

“다이군, 왜 그리 서둘러 비약을 하시나. 나는 두 책이 근본적으로 비슷한 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따름이네. 나는 두 번째 《연금술사》의 출간 시기에 주목하고 있네. 이게 첫 출간은 아니지 않은가. 십여 년 전에도 《연금술사》가 한 번 나왔었고, 몇몇 독자들에게는 나름대로 입소문을 탔지만 지금처럼 베스트셀러에 오르지는 못했지. 나는 지금의 코엘료 붐을 IMF 시기 후의 실용서, 더 정확하게는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서의 출간이 활발해지고 독자층도 넓어진 현상과 함께 생각하고 있네.”

“점점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면, 《연금술사》가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과 경제경영서가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자네야말로 비약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좀더 들어보게. IMF 시기 이후로 독자들은 문학적 향취를 느낄 만한 여유를 지니지 못하고 있네. 어느 정도는 대중매체의 호도에 탓이 있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뭔가 지금의 상태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욕망이 전보다는 더 커졌지. 그런 것이 실용서와 경제경영서, 자기계발서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네. 반면에 순수문학은 독자들의 손에서 멀어졌다네. 코엘료의 등장한 시점이 바로 그 순간이네. 《연금술사》는 문학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 기존의 순수문학처럼 어중간하지 않네.”

리이드는 조금 뜸을 들였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 말은 독자들이 깨울려겠다는 말이기도 하지. 깨울려졌다기보다 고민과 사색을 할 여유를 잃어버린 것 같기는 하네만. 코엘료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문학은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네. 실용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기계발서지.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바꾼 명작’이라면서 흔히 고전문학을 들먹이지 않는가. 옹기니, 혜세의 책들이라면 이해가 쉽겠군. 《데미안》이라면 모를까 《누가 내 치즈를...》 같은 책을 ‘내 삶의 명작’으로 들먹이지는 않는다네.”

“그러니까 자네 말을 정리하자면, 코엘료의 책은 문학을 향유할 만한 여유를 잃은 독자들이 힘들게 고민하거나 사색할 필요 없이 읽을 만한 삶의 안내서... 라는 말이지?”

“다이군다운 촌스러운 요약이지만 그렇다고 해두지.”

“《오 자히르》는 어떤가?”

“재미없었다네.”

“그 말은 처음에도 하지 않았는가?”

“《오 자히르》는 정말로 재미없었네. 코엘료의 책을 전부 읽은 것은 아니네만, 두 책을 포함하여 읽은 서너 권의 책과 나머지 책들의 정보로 미루어보건대 그의 모든 진액津液은 《연금술사》에 담겨 있네. 소재와 줄거리가 소년의 성장과 종교적 탐색과 남녀의 사랑이라는 식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란 게 진정한 자아의 탐색 아닌가. 끊임없이 이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네. 《연금술사》는 그것을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다

한 문장 한 문장 곱씹는 재미도 있었지만, 《오 자히르》는 초반부만 흥미로웠을 뿐 하고 싶은 말을 길게 늘어 지루하게 만들더군.”

“그래도 코엘료의 책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네. 자네 말대로 그렇게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면 사람들도 지루해질 텐데 말이야.”

“사람들은 그의 책들에서 위로를 받고 있네. 《연금술사》에는 아주 강력한 주문이 하나 있었지. ‘진정으로 원하지만 한다면 우주의 만물은 그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돕는다’는. 사람들은 이런 말로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네. 실제로도 그런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사실의 여부를 떠나 그렇게 믿고 싶은 거네. 지치고 힘든 삶이 언젠가는 바뀔 거라는 희망을 책 속에서 찾는 거겠지. 그리고 대리만족을 한다네. 현재의 나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나도 바뀔 수 있다는. 변화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자기계발서 아닌가.”

“또 자기계발서 소린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완전히 공감을 하진 못하겠군.”

“시기에 상관없이 사랑을 받는 책이 있는가 하면, 시기에 따라 독자들이 따로 필요로 하는 책도 있다는 말 정도로 이해하시게나. 그리고 그런 책들은 일정 부분 독자들의 독서 범위를 확장시키기도 한다네. 근대 장르문학이 폭넓게 읽히는 것을 보게나. 또 시장은 변화하고 있다네.”

“그렇군, 여기 다른 책을 가져왔는데 읽어보겠나?”

리이드는 못마땅한 눈초리로 힐끗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양하겠네, 다이군. 그냥 우리 서가에 있는 책이나 다시 한 번 읽어야겠네.” **★**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 지음 | 최정수 옮김 | 문학동네 | 278쪽 | 값 8,000원  
《오 자히르》 파울로 코엘료 지음 | 최정수 옮김 | 문학동네 | 448쪽 | 값 9,800원